

#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



사진은 류한우 단양군수.

단양군,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 통해 색다른 경험 제공

단양군(군수 류한우)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 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.

이번 인문학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행사로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피아니스트 이제찬, 바이올리ニ스트 이보경, 소프라노 이명희 등 9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페라를 소개할 계획이다.

1부 영화 속 인문학에서는 영화 "쇼팽의 연

인", "인생은 아름다워", "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", "미션 임파서블5" 속에 흐르는 친숙한 음악을 강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2부 오페라 속 인문학에서는 "세빌리아 이발사", "카르멘", "리날도", "라 트라비아타" 등 오페라의 아리아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군은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일상 속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.

인문학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평생학습센터(043-421-7909)로 하면 된다.

단양 / 김선용기자

21.8 X 12.5 cm

## 충청신문

2018년 12월 18일 (화)  
11면 문화

### 단양군, 영화·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

단양군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 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.

이번 인문학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행사로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피아니스트 이제찬, 바이올리ニ스트 이보경, 소프라노 이명희 등 9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페라를 소개할 계획이다.

1부 영화 속 인문학에서는 영화 쇼팽의 연인, 인생은 아름다워, 악마의 바이

올리ニ스트, 미션 임파서블5, 속에 흐르는 친숙한 음악을 강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2부 오페라 속 인문학에서는 세빌리아 이발사, 카르멘, 리날도, 라 트라비아타, 등 오페라의 아리아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군은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일상 속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.

한편, 인문학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평생학습센터(043-421-7909)로 하면 된다.

단양/정연환 기자 jyh3411@dailycc.net

11.1 X 8.5 cm

## 단양군 20일 영화·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 개최

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무료 진행

단양군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.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행사로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 피아니스트 이제찬,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, 소프라노 이명희 등 9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페라를 소개할 계획이다.

1부 영화 속 인문학에서는 영화 '쇼팽의 연인', '인생은 아름다워', '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', '미션 임파서블 5' 속에 흐르는 친숙한 음악을 강연과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. 2부 오페라 속 인문학에서는 '세빌리아 이발사', '카르멘', '리날도', '라 트라비아타' 등 오페라의 아리아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군은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일상 속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. 인문학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된다. 단양=이상복 기자 cho225@cclday.co.kr

12.7 X 8.2 cm

## 단양군 '영화·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'

피아니스트 이제찬·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 등 음악가 9명 참여

단양군이 오는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.

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행사다.

공연은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피아니스트 이제찬,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, 소프라노 이명희 등 9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페라를 소개할 계획이다.

군 관계자는 "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일상 속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.

단양 장승주 기자

11.4 X 7.1 cm

## 단양군, 20일 인문학 콘서트

단양군이 오는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. 이번 인문학콘서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행사로 인문학 강연과 음악의 콜라보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피아니스트 이제찬,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, 소프라노 이명희 등 9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오

2018년 12월 18일 (화)

14면 지역

페라를 소개할 계획이다. 1부 영화 속 인문학에서는 영화 '쇼팽의 연인' '인생은 아름다워' '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' '미션 임파서블5' 속에 흐르는 친숙한 음악을 강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2부 오페라 속 인문학에서는 '세빌리아 이발사' '카르멘' '리날도' '라 트라비아티' 등 오페라의 아리아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.

인문학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평생학습센터(☎ 043-421-7909)로 하면 된다.

/단양=이재남기자

11.6 X 6.8 cm